

(주의 : 좌장 기조 발언 외에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본 영상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 1. 좌장 기조 발언 :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사단법인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김재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동물권은 거대한 **\*\*'전환점'\*\***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시험 받는 중요한 시기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동물권행동 카라'가 겪고 있는 현재의 논의들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동물권 운동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치열한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카라가 마주한 변화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투명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3월 12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앞두고, 회원 여러분께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건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소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카라 앞에는 동물복지의 현장 실천부터 조직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에 이르기까지 매우 본질적인 질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카라는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활동가의 헌신과 회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동력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온 임원들의 열정이 국내 최고의 동물권 단체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다양한 의견들은 카라가 그 성장에 걸맞은 더 견고한 시스템과 민주적 소통 구조를 갖추어, 사회적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를 바라는 공동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즉각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주장 뒤에 숨은 여러분의 '카라를 향한 애정'과 그 근거를 충분히 경청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정관과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집단지성으로 이루

어질 것입니다.

저는 좌장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카라는 어떤 모습으로 도약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목표에서 토론이 벗어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소통을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를 수 있어도 '동물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함께 달려온 동지들입니다.

오늘 토론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라가 다시금 우리 사회 동물권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발언 시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안의 본질과 객관적 근거에 집중해 주십시오.

둘째,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공평하게 담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 토론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좌장이 진행에 개입할 수 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동물권행동 카라 위기 극복 토론회입니다.

1부 : 카라 위기 진단

2부 : 임시총회 안건 토론

3부 : 카라의 미래

내용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 :

동물권행동 카라 최호윤 감사

한국노총 카라지부 지부장 하미정

자원봉사자 노현아

민주노총 카라지회 고현성 지부장 -> 불참

고현선 지부장 추천 봉사자 -> 불참

## 1. 카라가 위기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호윤:

더불어 살아가면 다른 의견 존재, 법과 규정은 어떤 일 발생 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 규정과 원칙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문제해결 방식,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 머리 맞대고 해결점 찾기보다 다르다, 틀렸다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듯,

누가 맞다 틀렸다 보다는 여러 회원, 지회에서 나온 얘기 속에서 가능한 부분등을 반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봄,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약속했던 원칙과 규정들이 인지되지 않고 주장만 되는 것이 문제다,

노현아:

2022년말부터 카라 봉사하고 있음, 카라에서 입양한 입양가족, 봉사자의 시선으로 말하고싶다, 현장의 상황은 처참함, 2022년 코로나 말기 국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통하며 분위기 좋았다,

현재는 소통 안되고,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동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통부재로 아이들의 피해가 있다, 현장에서의 모습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점, (빈 자리) 소통하고 싶었는데 유감스럽다, 이 부분을 정말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다. 현장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불참한 패널에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미정:

회원모급팀 활동가로서 얘기하고 싶다, 가장 큰 위기는 회원님들이 카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 후원과 함께 동물복지 향상에 연대한다는 의미인데, 1만8천이 넘던 회원이 이번달 회원은 1만1천명으로 떨어졌을 것, 동물권운동에 애정하고 동조하던 분들이 시끄러워서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기 아닌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위기, 동물권운동의 지지 철회가 위기다,

## 2. 현재 갈등이 동물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좌장: 동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했다. 대화와 소통의 부재, 회원의 감소, 동물들의 피해로 간다는게 패널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 3. 조직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라고 보나?

하미정: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자료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반대, 사무실에서도 의견제시 어려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음, 속하지 않은 활동가도 있음, 사내노조도 있음, 민주노총 소속자 외에는 불편해 하는데 전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동물을 함께 돌보면 가능할 것 같다,

저는 마포 근처에서 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 더봄센터로 가면 좀 편안하다. 직접

동물을 보고 느긋해진다. 우리의 돌봄 현장은 이랬지, 얼굴이 빼돌었는데 이제 봤네요 등의 정보교환하며 마음을 나누면 좋지 않겠나.

첨예한 이슈들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을 바라보며, 이 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믿으면 좋겠다.

밖으로 샤우팅 안한다고 해서 생각 없지 않다. 다 생각이 있다. 너무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와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노현아:

현장에 있다보니 현재 활동가 아침스케줄부터 저녁스케줄까지, 돌봄 손길이 너무 모자란다. 빨리 놀아달라는 눈빛. 인원이 좀더 있었으면 한 아쉬움이 늘 든다.

유실과 입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전이면 금방 해결되었을 것이, 간접소통을 하다보니 오해도 쌓이고 정확한 전달 어려워.

파업중이신 분들에게, 현장에 정말 빨리 돌아와주셨으면 함, 돌보며 주장했으면 한다. 돌봄 손길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열심히 돌보는 더봄 활동가를 응원한다.

힘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화를 시켜서 입양을 가게 할지,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달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최호윤:

사담일 수 있지만, 부부도 소통안되는 경우 많다. 보이지 않는 문장보다 얼굴보며 차이 보정 필요, 조직 신뢰회복이 첫번째.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기회임. 공동체는 여러 단계, 각자 개인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누구나 갖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것이 서로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신뢰란 아주 작은 말. 나의 말에 반응하네. 귀 기울이네 등의 과정이 쌓이면서 신뢰가 회복됨. 조직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나의 바람을 얘기하기보다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좋겠다.

결론보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우의 수, 듣는 쪽에서는 다른 방법도 고민함. 이것만 되어야 해라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조직 신뢰를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함. 결론보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 대화의 방식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해 보임.

좌장:

오늘은 한쪽만 잇는 것 같아. 좌장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본다.

하미정 지부장님, 마포 근처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멀리가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미정: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아팠다. 동료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갔다.

후원이 줄어드니 활동가가 지쳐서 나가고, 마음이 안좋았다.

나도 카라를 나가면 다른 직장보다 프리랜서일듯,

젊은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다. 돌봄을 하고 하고싶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나가고 있다, 오전에 2층에서 돌봄하고 오후에 일한다, 회원들과 어려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  
2023년 초처럼 구조도 많이하고 위기동물을 돌보고 법도 개정하는 그런 날이 올거라 믿고 있다.

좌장:

마포 사무실 매각,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 감사님.

최호윤:

경영 참여보다는 옆에서 보는 입장이다보니, 전체적으로 어려움들 때문에 전체적인 모금구조가 어려워졌고, 자금난은 현실임,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다양한 안,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즐라멜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활동을 활성화시켜 후일에 부동산을 다시 구입할 수 있고,  
경영적인 의사결정,

좌장:

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회원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위함,  
카라가 재성장하고 발돋움 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추가적인 의견 주실 수 있나?

하미정:

영당이에 깔고 있는 건물이 중요한가, 위탁소 동물돌봄 문제있다고 주장되는 100마리 동물 데려오는게 중요한가, 더봄에 땅사서 건물 짓는건 어떤가.  
약수동 사무실 시절 구조된 꽃돌이라는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고순이와 꽃순이 꽃돌이가 오피스캐트로 있다가 더봄에 갔는데, 더봄에는 노령화된 동물이 굉장히 많다, 동물들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시설이 필요,  
건물보다 새 건물 지어서 노령화된 동물을 돌보고 위탁소 동물을 데려와서 입양보내고 싶다,  
건물은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좌장:

회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3월12일 임시총회에서 집단지성이 나오면 좋겠다, 회원들의 결정이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대화와 소통의 부재, 좌장 입장에서는 대화 단절의 느낌을 받고 있다,

## 2부 임시총회 안건 토론

### 1) 특별위원회

좌장:

불법 위탁업체 문제와 관련하여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노현아 : 가장 큰 문제가 불법이라는 것,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불법이라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동물법제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위탁업체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면 좋겠고,  
불법 위탁업체라는 것은 봉사자로서 카라가 잘못,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전부 합법적,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과거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봄,  
위탁업체가 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현재 위탁업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복지문제는 관리해야 할 문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과 카라 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상세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싶다,

좌장:

임시총회 안건은 이사회라든지, 패널들 묶은 아니다,  
이사와 회원의 의견수렴이 가능할지,  
안건이어서 패널토론을 해야하는 주제인지,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호윤:

오늘 논의 자리가 안건을 정한다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요구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나 놓친 것들을 편하게 토론해 보면 토론속에서 나올 수 있다.  
“총회를 위한 사전 이해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별로 무리가 없다고 봄,

좌장:

솔로몬의 지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양측의 입장을 가감없이 회원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좌장 :

동물복지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한가.

최호윤 :

법인의 조직, 이사회 참관 조직이라 하면, 조직의 성격과 구조가 미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함, 그런데 현재 있는 동물복지특별위원회는 정관상 조문이 없다, 정관 규정 변경이 필요함,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음.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이었다면, 특위는 일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할건지 등 아쉬움이 있다.

총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첫째 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음,

둘째 정관에서는 각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세부목적별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전문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님 대표이사가 위촉,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고 정관이 정함, 특위에 대하여 정관에 없는 새로운 조직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봐야 함,

정관에 따라 전문위 설치할 수 있음, 전문위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면 됨, 정관 규정에 따라 가게됨.

이것 자체가 총회 의결안건으로 부의할 사안은 분명히 아님, 그러나 회원들이 이런 의견을 개

진했기에, 이사회에서 동복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논의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회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

좌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조직은, 총회 안건 상정은 이사회를 하고 그게 순서인데, 특별위원회라든지 3개가 안건이 되는지, 회원의 긴급한 의견이 있어 임시총회를 정관에 없다면 임시총회를 통해 기타의견으로 특위설치를 의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

최호윤:

총회는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정관에서 약속, 이러한 것을 한다고, 실질 사무집행은 이사회에서 법인의 일을 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사항, 모든 걸 총회에서 결정할 수 없음.

이사회 사무집행 자체가 무력화되면, 이사를 뽑을 이유가 없음,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총 의결 안건이 어디까지 갈 건가

법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9가지로 열거,

총회 안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안, 기타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기엔 특위 설치가 총회 의결사안으로는 너무 급이 낮다, 이 부분 자체는 총회에서 논의하다 결의로 통과될 수도 있으나,

정관에 하부규정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정관개정 논의 또해야 함, 총회 결의의 급이 있고,

의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사회에서 설치하거나, 총회에서 설치하거나, 결론을 만들어 놓고가는게 아니라 가는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관에 따라 만든다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하미정:

지난번 임총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50인 이상 회원이 임총을 요청할 수 있음, 이번에도 요청했고,

그 과정에 카라 활동가와 그 가족이 30명 이상임,

특위 때 박래균 김성호, 이해상충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얘기하셨다.

이게 맞는건지 지부장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에 대하여 이게 맞는 것인지, 활동가다 회원이다 대의원이다, 임시총회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지 문제 제기하고 싶다.

총회의 정관은 개괄적이다, 디테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의 정관은 부실하다,

특위위원장님 2인의 제안, 카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말에 동의,

정관을 그때마다 바꿀건가, 전문인력으로 정관을 손질해야 한다,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

노현아:

카라의 정관상 특별위원회 부분이 무지했는데, 들으면서 도움이 됐다, 회사 다녔지만, 카라 정관이 추상적이고 부실한 면이 있다,

정관을 전문가 도움을 총해서 잘 정리되면 좋겠고, 원칙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공지, 원칙,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것 같고, 동물복지의 의미는 좋습니다만, 기본과 원칙에 따른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좌장:

사무국에서 잘 정리해 카라의 발전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다,

최호윤 :

저는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며 많은 단체 정관을 본다,  
카라 정관의 특징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바꾼 게 많다, 전체 맥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 설치로 결의되면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닌데 의결한 것으로  
총회 의결하면, 결의 부존재 소송을 내고 싶은 마음, 상정이 되면 안되는 것,  
이사회가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그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올린다? 여러 복잡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아니지만 안이 아니지만 보듬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이사회에서 미리 설치를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 이사회에서 총회 나오기 전에 미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을 하고 공개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볼 사안으로 의견 드림.

## 2) 정관 개정, 3) 임원 징계- 대표해임,

좌장:

뭉어서,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자유롭게 토론

하미정 :

정관 개정의 건은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의원 선출시 변동 있었지만, 11000으로 떨어졌지만,  
카라 지원만 할게, 돈 가는 데 마음 간다, 오랜 후원자가 입양도 하고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애정 있는 분들이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실제 참여는 어렵다, 그 자격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고, 기본적으로는 오랜 후원회원 애정가지신 분들이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표 해임은 각자 다른 생각, 현재 대표에 대한 안쓰러움은 있다, 하지만 대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  
대화 요구를 들어주면 어떨까,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불법인 거 왜 몰랐어 라고 하면 누구도 대표를 할 수 없다,  
흔들지 말고 삼발이가 되어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대표 썩 좋아하지 않지만 동물권을 위해 했던 일들, 동물권을 향해 나간 진심을 믿는다,

좌장:

정관 개정이 임원 선출, 회원의 참여가능성을 열어 민주성을 확대하고 선출 방법이 바뀌었을 때 조직의 운영 안정성이라든지, 의사결정과 구조의 우려에 대해 말씀해 달라.

하미정:

저희는 구조가 경직되어 있음, 여러 방법을 씀, 총회를 나눠서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경직된 총회를 하고 있음,  
대의원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좌장 :

집단지성, 민주적 절차,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참여를 많이 아우르면서 조직을 튼튼히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 그 점에서 정관개정 도입되지 않았을까,

최호윤 :

12조 임원 선출 개정의 내용, 임원에 대한 이사회 추천 규정 삭제, 모든 회원이 임원 후보로 입후보 하거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임원에 대해 회원이 직접 추천하거나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자,

궐위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회가 아닌 총회가 선임하도록 하자고 요구되었음.

제안 이유는 회원이 임원 선출과정에 참여하고, 임원 입후보 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내용.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받을거나 말거나 만 있음,

보완해야 할 규정이 너무나 많다. 제안이 상당히 부실하다, 받을 경우 빈 게 많기 때문에, 임원후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총회 결정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 법인 사무는 이사회 고유권한, 총회 안건 상정은 고유 사무 집행 역할이므로 이사의 고유업무를 배제하는 것, 법인의 사무집행권을 박탈하는 것, 이사만이 총회 안건을 정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야 함,

회원이 직접 후보를 추천, 누군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있으나, 총회진행 자체가 어려워짐.

총회에서 선임할 대상자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과 이사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이며 이사회가 추천할 안을 어떻게 할지는 열려 있는 것,

회원이 피선거권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이사회에 올릴 이사를 추천하는 것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간다면 조화 가능,

원안은 이사 집행도 문제가 되고, 총회 후보 난립, 검증되지 않은 후보 검증은 어떻게 할 거나, 임원 선임에 있어 상당한 문제로 남을 것,

많은 단체들이 임원 선임 위원회를 별도로 둬,

많은 회원들이 요청하면 열어둘 수 있고, 또다른 방법으로는, 총회 의결권자는 대의원, 회원 추천의 경우는 무분별한 난립이 아니라, 가장 작은 대의원 50명의 추천은 받아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등 전차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회원 추천이어도 검증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궐위된 후원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하자, 궐위된 보선된 임기는 1년 미만, 1년밖에 남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으로 제한되니 업무단절을 막기 위해 이사회가 그대로 하는 게 전체적인 실익에서 더 타당하고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업무의 신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더 중시,

정관에서 임원 해임 이유는 단체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각종 회의에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직의 리더에 대해 그 사람 잘한다, 못한다 평가는 각자가 하고, 심판은 임기 끝나고 선임될 때 의견 표시하게 됨.

징계사유로 나온 것은 정관 규정을 어기면 리더로서 의미가 없다하여 징계사유가 됨, 대표이사 해임으로 제시된 사안은 불법 위탁업체인데,

불법이나 위탁이나 구분, 이미 정지되고 등록이 새로 되며 문제가 해결됨, 의도적으로 법인에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다.

잘못과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다른 얘기,

후원금 남용을 사유로 들고 있다. 특정인의 행위가 권한 남용, 권한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 법인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제공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들.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그걸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 총회 한도액 예산승인 범위였다면,

인건비 지출을 권한 남용이라 할 수 없고, 총회 예산 승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짐.

컨설팅 없어도 원래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계약금의 50% 미만의 금액 지불, 계약이 중단됨,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면 중단 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맞는 의사결정임.

회원의 참여권 배제, 대표이사 해임 사유, 회원의 참여권은 정관개정으로 결정된 것, 단체 정관 규정 절차 위반, 개인적 오류가 있을 때 해임 사유가 됨.

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

대표이사가 정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제시되어야 안건으로서 의미가짐.

좌장:

임총을 하게 되면, 대의원 과반수 참여로 의결되나.

궁금한 내용은 참여를 안해서 위임장 받기도 힘든데, 위임도 성원이 되어야 할텐데,

별개의 내용이지만 결정을 하였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현아:

저는 의결권이 없다, 봉사자, 후원회원으로서,

정관개정 사안으로서 이사회 아닌 회원 추천에 있어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

회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싶고 의견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임.

후원회원의날 입양가족의날 봉사자데이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행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으로 안되고 있음.

카라도 오픈마인드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이런 분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주면 좋겠다.

카라 경영에 함께하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참신한 의견 수용하고 경영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람

임원해임은 내가 참여할 문제 아니나 원리원칙에 벗어난 행동인지 잘못된 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해임시 카라가 정상화 될 수 있는지 이부분 판단해야.

좌장:

마지막 토론으로 2027년 2월은 한국 동물복지 걸림돌이었던 개식용 문제 해결의 해, 카라의 오래동안 활동하며, 미래에 대해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아닐까한다.

질문의 2가지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나?

개식용종식 이후 카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노현아 :

운영진들이 활동가를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밝혔던 카라로 돌아가고, 돌봄 활동가들이 7시 출근 밤 9시 퇴근으로 2부제로 고생하고 신체적 무리가 보인다,

손목보호대, 무릎 아파서 병원도 다니는데,

세세한 부분 볼 수 없겠지만 격려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좌장 :

카라가 목표지향점이 있다면,

돌봄을 주로 할거나 문화확산 영화제 같은 거 할거나,

카라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달라,

노현아: 카라가 비상상태여서 기본 돌봄에 충실하고, 정립되면, 교육과 캠페인 법제화 등도 같이 이뤄져야, 개식용 문제도 당장 내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사건 등 대형견 수용공간 불법 시설이 많기에 개선, 캠페인 법제화에 신경쓰되, 돌봄이라는 기본역할은 충실한 가운데 이뤄져야,

좌장 :

노조 지부장이신데 카라의 조직적 문제, 우리나라에서 카라가 정책부분에 활발한 활동했는데

하미정 :

노조로서 소통이 안되었다 생각하지는 않음, 노사협의회 100% 반영은 아니었지만 2019부터 노사협 생겼고, 노조 생긴지 얼마 안되어 시끄러움,

당연함을 너머 소통이 잘되는 구조이면 좋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달라,

각 팀을 다른 형태를 잘 정비, 디테일함이 만족도를 높일 것,

정관을 봐야하듯, 내부 규정도 전부 다 들여다봐야,

서로간에 약속을 지키는 과정들이 안정화되면 동물을 돌보는 데 멋진 카라가 될듯,

근무하는 게 자부심이 넘쳐나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다시 되었으면,

최호윤:

제가 생각하는 카라의 미래는 현재 상황을 보면 솔직히 상당히 암담,

대화 안되고, 언론 나오면 불태바다 얼굴이 화끈, 현장 보면 다른 느낌이고,

한편으로는 국내 비영리단체 조직구조 속에서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며 부딪치는 사례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없다.

현재 상황에서 카라라는 단체의 정체성이 다시 정립되어가는 과정이다. 비영리 단체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임, 비영리단체 주인은 등기임원은 임원, 회원은 회원, 활동가들은, 우리가 없으면 안돌아가니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다 단체가 후원이 떨어지면 주인들이 사라진다, 돈이 없어져 간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나? 부동산 하나?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는 각자의 정체성 가치관, 드러내고 조율하고 만들어내는 과정, 서로가 대화하며 바라는게 뭔지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성원간 강력한 힘 형성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사업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된다, 지금현재 어려운 지점 슬기롭게 잘 이겨내면,

좌장:

전체적인 완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3/12 임시총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혹시 오늘 토론회 마무리 전에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노현아:

카라에 봉사 많이 와달라, 예전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다. 복잡한데 왜 가느냐, 매주 달라지는 아이들, 카라의 아이들 보러, 안보면 병이 날 거 같아서. 사랑해 주시러, 많은 분들 와달라,

최호윤:

조직에 의견들이 다르면, 충돌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됨,

원인이 뭐든 그간 마음 상처 받은 분들께 위로 인사,

하미정:

일하는 모든 활동가, 나는 왜 동물권에 투신을 하였나, 어떤 초심을 갖고 일하게 되었나, 그런 것들을 돌아봐달라,

좌: 앞으로의 결정은 정관과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이뤄질 것.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모든 회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끝)